

이 자료는 6월 8일(목) 11: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6. 6. 8(목)

1. 최근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운용관련 / 1
2. 제2차 물류·경제자유구역 회의 개최 결과 / 9
3. 최근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/11
4.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결과 / 13
5.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긍정적 효과 / 18
6. G8 재무장관 회의 참석 / 21

재 정 경 제 부

1 최근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운용관련

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상반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

<1> 최근 경제상황 평가

- 우선, 금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했을 때(05.12)와 경제여건을 비교해 보면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
 - 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환율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당초 금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지적했던 하방위험이 현재화된 반면,
 - * Dubai유(기말) : (05)53.5→(06.3)60.5→(5)65.3→(6.6)67.0
 - * 원/달러(기말) : (05)1,011.6→(06.3)971.6→(5)945.6→(6.7)948.2
 - 세계경기는 IMF와 OECD가 금년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* 2006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(%)

: IMF (당초) 4.3 → (수정) 4.9, OECD (당초) 2.9 → (수정) 3.1

<주> OECD는 회원국 기준

□ 이에 따라, 경상수지는 유가상승과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,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진데다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1~4월중 적자(△10.6억불)를 나타냈으나

* 경상수지(억불) : (05.1/4)58.8→(2/4)26.0→(3/4)26.5→(4/4)54.3→(06.1/4)△10.6

○ 수출은 두자리수의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특히 5월 수출은 월 실적으로 최고치(280.1억불)를 기록한 바 있음

* 수출(통관,%) : (05)12.0→(06.1)3.6→(2)16.6→(3)12.2→(4)12.0→(5)21.1

□ 한편, 내수의 경우에는 건설경기가 부진하기는 하나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도 개선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

* 소비재판매(%) : (05)3.9, (05.3/4)4.4→(4/4)6.8→(06.1/4)5.0→(4)5.2

* 설비투자추계(%) : (05)3.2, (05.3/4)1.1→(4/4)7.0→(06.1/4)4.3→(4)7.3

* 건설기성(경상, %) : (05)5.7, (05.3/4)3.8→(4/4)6.9→(06.1/4)5.8→(4)2.0

○ 이러한 경기회복흐름을 반영하여 제조업 생산(산업활동)은 10% 내외, 서비스업 활동은 6%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생산활동 역시 활발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

* 산업생산(%) : (05)6.3, (05.3/4)7.1→(4/4)10.3→(06.1/4)12.0→(4)9.5

* 서비스업활동(%) : (05)3.6, (05.3/4)5.4→(4/4)5.8→(06.1/4)6.2→(4)6.0

□ 고용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추세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개선흐름(금년 1~4월중 33만명 증가)을 이어가고 있으며

* 취업자 증감(만명) : (05.3/4)38→(4/4)29→(06.1/4)33→(4)31

○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2% 초반, 근원물가가 1% 후반의 오름세에 그치는 등 하향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음

* 소비자물가(%) : 05.3/4)2.3→(4/4)2.5→(06.1/4)2.3→(4)2.0→(5)2.4
 근원물가(%) : (05.3/4)1.9→(4/4)1.8→(06.1/4)1.6→(4)1.6→(5)2.0

○ 한편, 부동산 시장은 8.31 부동산정책과 3.30 대책의 효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서울 및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올해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

최근 아파트시장 동향(국민은행 발표)

(단위 : 전년/전월/전주대비증감, %)

	'04	'05	'06년 3월	4월	5월 ¹⁾	05.8.29 ~06.5.29	5.8	5.15	5.22	5.29
전국	△2.1	4.0	0.6	0.9	1.0	4.8	0.2	0.2	0.2	0.1
수도권	△2.9	5.1	1.0	1.4	1.7	7.3	0.4	0.4	0.4	0.2
서울	△1.4	6.3	1.2	1.5	1.5	8.9	0.3	0.5	0.3	0.1
강남(11구)	△1.6	9.4	1.8	2.3	2.2	11.4	0.3	0.5	0.4	0.1
강남3구	-	-	-	-	-	17.7	0.7	0.3	0.1	0.1
강남구	△2.0	15.1	2.8	3.3	2.3	20.2	0.7	0.3	0.1	0.1
서초구	△1.3	19.4	2.3	3.1	2.4	17.0	1.0	0.5	0.0	0.1
송파구	△1.4	15.9	2.6	2.4	1.7	16.4	0.5	0.2	0.1	0.1

* 강남3구 재건축 : (5.8) 0.6%→(5.15) 0.0%→(5.22) △0.6%→(5.29) △0.1%

1) 4.10일 주간~ 5.15일 주간 기준

□ 이러한 대외 여건과 국내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금년중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

○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간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(150억불 내외)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임

<2>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 관련

□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여건과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판단과 상반기 경제 정책 추진실적을 토대로 관계부처·연구기관·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것이나

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함

○ 첫째,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임

-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상반기중 발표되어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정책을 전환한다면 득(得)보다 실(失)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

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일 것임

○ 둘째,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미조정(fine-tuning)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음

□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볼 때,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음

① 첫째, 거시정책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

○ 현 경제상황을 볼 때 이를 크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으나, 상반기 재정 집행과 BTL 등 민자유치 진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음

○ 또한, 한국은행 등과 함께 물가안정기조를 점검하여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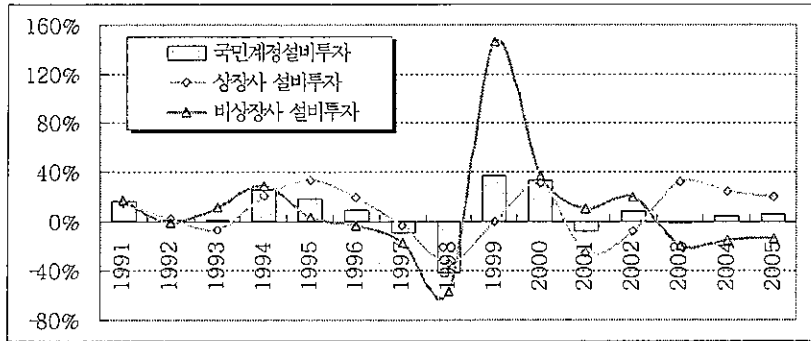
② 둘째로, 투자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

○ 투자활력 제고는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이후까지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

○ 투자를 기업규모별로 볼 경우 대기업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, 중소기업 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

- 특히, 환율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

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추이



<출처> KDI : 비상장사 설비투자는 국민계정 설비투자에서 상장기업 설비투자를 차감하여 계산

○ 상반기중 이미 몇가지 대책들이 마련된 바 있으나, (기업투자 활성화방안(06.4.6),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(06.4.14),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(06.6) 등)

- 현재 추진중인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법인·공장 설립절차 개선, 금융지원과 투자애로 사항 해소 등 투자여건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

③ 셋째로, 경제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

○ 8.31정책과 후속대책(3.30대책)의 국회입법이 완료되고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마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·정착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이므로

○ 앞으로도 그간 마련·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것임

④ 끝으로,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

○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

- 이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

○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여지가 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

- 교육,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업과 법률·회계·컨설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

○ 아울러, 금융·외환·세제, 경쟁체계, 노사관계, 대외개방 등 경제시스템 전반을 선진화·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

○ 이와 함께, 양극화 문제에 대응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,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

□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 운용방향을 마련함에 있어

- 현재 관련 협회,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경제여건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,
-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, 관계부처 회의, 연구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음

2 제2차 물류·경제자유구역 회의 개최 결과

□ 지난 6월 7일(수),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·경제자유구역회의가 개최되었음

-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차 회의('05.6.16)에 이은 2차 회의로, 경제자유구역과 물류 허브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주변국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음

□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간의 변화된 모습과 향후 발전계획을 보고하였으며,

- 건교부·해수부는 물류 관련 안건을 보고하였음

※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, 최근 FTA 추진, 중국·UAE 등 주변국간 허브경쟁 등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격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

□ 먼저 동회의에서 보고 드린 경제자유구역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

<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>

- 우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하고,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해 권한위임을 확대할 계획임

-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
< 투자유치 활성화 >

- 개발사업자 공모시 국내외기업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입주 외국기업유치를 강화하겠음
- 이를 위해 예산 지원기준도 도로, 공동구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선도 외투기업, R&D 센터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
< 동북아 교육·의료 허브 육성>

- 국제 학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
 - 외투기업 형태의 병원설립을 허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,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음
 - 아울러 전문 의료타운과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겠음
- 대통령께서는 보고된 정책들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시 하셨으며,
- 특히,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(사람, 인프라, 기업·생활환경)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음
-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

3 최근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

-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
-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
- 이번 대책은 혁신형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물측면과 금융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여겨짐

【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】

- 이번 대책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,
- 단기적으로는 수출중소기업들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환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

-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 수출지역다변화를 유도하여 환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,
 -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5,000억원, 기업은행이 3,000억원 등의 수출금융지원도 확충해 나가겠음
- 장기적으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중기청 정책 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
-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확대를 통해 제품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,
-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, 세제지원, 공동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구조전환을 촉진하여 혁신형 수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임
- 특히 그동안 사업전환, 경영합리화 등 적극적 구조 조정의 미흡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인식하여
- 경쟁력 저하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수출 중소기업은 유망한 다른 수출업종이나 내수기업으로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함

- 지난 6월 3일에서 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(“경추위”)가 개최되었는 바
- 이번 경추위에는 종전과 같이 재경부 제1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
 - * 북측은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17명 참석
- 이번 경추위를 통해 타결한 합의문(9개항)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,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음 (합의문 골자는 첨부)
- 제12차 경추위에서 거둔 성과와 의미를 말씀드리면,
- 그간 열차 시험운행 연기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 국면에서 탈피하고, 남북경협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
- 무엇보다도, 열차 시험운행 시점에 경공업-지하자원 합의를 발효한다는 입장을 관철함으로써, 열차 시험운행이 이행되도록 하였음
 - 구체적으로는, 경추위 합의문에 “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” 경공업-지하자원 합의를 발효키로 하였으며,

- 우리측 경추위 위원장이 합의문 낭독시
“조건 조성이란 군사적 보장장치에 따른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뜻한다”고 부가적으로 밝힌 바 있음
 - 열차 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날자와 관련하여
 - 경공업-지하자원 합의서에 우리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시점을 “8월부터”로 명시함으로써, 북측에 그 이전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음
- ② 또한, 이번 경추위를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·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는 바
- 첫째, 제10차 경추위(05.7월)에서 新 경협사업으로서 추진키로 합의한 후 근 1년만에 경공업-지하자원 합의를 채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
 - 합의서는 열차 시험운행이 되어야 발효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지만,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업적·호혜적 방식의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,
 - 최근 중국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북한대 지하자원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함
 - 둘째, 개성공단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는 바,

- 개성공단내 노무관리 등 제도가 국제 규범 및 관행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,
 - 그간 입주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, 노무관리 자율성 확대, 통행·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아울러 개성공단에 관한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는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이번 합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
- 셋째,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, 향후 同 사업을 통해 수도권 골재난 해소, 수해방지,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
 - 다만,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
 - 마지막으로, 그간 수 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했던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일정을 “경공업-지하자원 합의서 발효시점”으로 명시하여 실행성을 제고시킨 점, 역시 이번 경추위의 성과

가운데 하나임

- 앞으로 경제시찰단 교환이 성사되면 남북 양측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,
- 민간기업 주도로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

□ 정부는 8월말까지 남북간에 활발한 실무접촉을 추진해 나가고, 이러한 실무접촉을 바탕으로,

- 오는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차기(제13차) 경추위에서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
- 국민 여러분들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【 별첨 】 제12차 경추위 합의문 골자

- 「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」를 채택(서명)하되,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
 - * 우리측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“군사적 보장장치가 이루어지고 열차 시험운행이 실시되는 것을 상징”한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
-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장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
-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조건 마련 (6.20~6.21,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)
 - 통행·통관절차 간소화,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,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 협의
- 경공업-지하자원 합의서 발효시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
-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협의 (7월중 실무접촉 개최)
 - * 북측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남측이 장비·자금을 투자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투입하여, 탄광개발·벌목 등 협력을 추진하자는 입장
- 이외에 既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진행
 -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.26~6.27 개최
 - 자연재해 공동방지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최
 - 수산협력, 과학기술협력, 상사중재위원회 등 개최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

- 한미 FTA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
- NAFTA가 멕시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
 - 대부분 '94~'95년 발생한 폐소화 금융위기와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던 지역간·계층간 격차와 같은 멕시코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,
 - 겉으로 드러난 사회현상과 일부 인터뷰 결과만을 근거로 멕시코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임
 -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, NAFTA가 멕시코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,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함
-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,

- IMF나 세계은행 보고서 등은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AFTA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,
- 멕시코내 많은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
- 특히 GDP성장률, 수출등 교역량, 외국인 투자등 객관적인 거시 총량지표는 NAFTA 이후 크게 개선되었는바,
 - 최근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NAFTA 체결 이전과 비교할 때 4.5배 증가하였으며,
 - * FDI 유입액 : 120억불 ('91~'93) → 540억불 ('00~'02)
 - * 총고정자본형성액중 FDI 비중 : 6%('93) → 11%('02)
 - GDP대비 교역규모도 70% 이상 증가하였고, 대미 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
 - * 교역규모(GDP대비) : 36%(90~93) → 62.7%(96~00)
 - * 수출액 (연평균) : 310억불 (86~93) → 1,253억불 (96~00)
 - * 대미 무역수지 : △20억불 (93) → 650억불 (05)
 - 또한, 수출과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면서 GDP 성장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 - * 연평균 GDP 성장률 추이 : 2%(80~93) → 4% (96~02)
- 뿐만아니라 물가상승률, 실업률, 외환보유고 등도 NAFTA 체결 이전에 비해 상당폭 개선되었는바,

- 물가상승률은 2000년 들어 한자리 숫자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되어 5%내외에서 안정되었으며,
- 실업률도 '95년 7.5%에서 '03년 3.2%로 크게 개선되었고,
- '95년 폐소화 위기 당시 157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도 '06.3월말 현재 760억불로 5배 가까이 늘어났음

□ 아울러 NAFTA 체결로 초토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멕시코 농업부문의 경우에도,

- 농업 생산량이 '93년부터 '01년 사이에 50% 증가하였고,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같은 기간 100%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*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* 안토니오 오르티스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국제관계학 소장 기고문(국정브리핑 06.6.7일자)

□ 이와 같이 멕시코 사례는 FTA가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바,

- 정부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임
- 또한 취약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와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

※ 별도배부해 드린 보도자료(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)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

6

G8 재무장관 회의 참석

□ 마지막으로 금년도 G8 의장국인 러시아의 초청으로 이번 주말(6.10일) 상트 페테르부르크(Saint-Petersburg)에서 개최되는 **G8 재무장관 회의**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(6.9일) 출국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음

- 이번 G8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·인도·브라질·호주·나이지리아 등 6개 신흥시장국 재무장관들이 함께 초청되었음

□ 금번 회의에서는

- ① **재정의 건전한 지배구조(Good Governance in Public Finance)**
- ② **국제사회에서의 신흥시장국의 역할(Emerging Donors in the Global Development Community)**이라는 두가지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임

-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제1의제와 관련하여 **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Best Practice**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

- 제2의제와 관련하여 저소득국 개발원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공여국들과 신흥 원조공여국들 간의 협조방안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하게 됨

□ 참고로, 작년 6월 개최된 G8 재무장관 회의에는 중국·인도·브라질·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초청된 바 있음